

## 초고층 건물의 안전관리체계 연구

김민섭, 조영도\*, 박교식, 유병태<sup>1</sup>, 고재욱<sup>2</sup>

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;

<sup>1</sup>국립방재연구소; <sup>2</sup>광운대학교

(ydjo@kgs.or.kr\*)

초고층 건물 및 지하연계복합건물의 재난 방지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“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”을 추진중이다. 초고층 건물이라 함은 “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며, 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의 건축물로 판매시설, 호텔, 복합영상관, 관람집회 및 놀이시설 중 1개 이상이 있고 지하 역사나 지하 보도 또는 지하도 상가와 연결된 건축물”로 정의하고 있다. 특별법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관리를 위하여, 초고층 등 건특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“총괄재난관리자”와 초기대응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다. 지금까지의 소방법에 근거한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은 초고층에서 발생가능한 재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.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일본에서의 초고층 관련 재난조직을 알아보고 국내에 적합한 조직 체계를 제시하였다. 또한 각 조직 구성원에 적합한 교육 및 훈련(안)을 제시하여 향후 실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.